



즉시 배포용: 2024년 10월 2일

KATHY HOCHUL 주지사

주지사, 의료 접근성 확대 및 정신 보건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

*법안 S.201/A.2656에 따라 임신부는 과징금 없이 의료 보험 가입 가능*

*법안 S.1965-A/A.3865-A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정 의료보험사는 출산전 비타민 비용 보장*

*법안 S.6674-A/A.7790-A에 따라 모유 기증에 대한 보험 보장 범위 확대*

*뉴욕주는 1월 1일부터 최초로 유급 육아 휴직 정책을 시행하여 전국을 선도*

Kathy Hochul 주지사는 산전 및 산후 여성의 건강과 관련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에 앞서, Hochul 주지사는 전국 최초의 유급 육아 휴직 시행, 조산사 서비스 접근성 확대, 뉴욕 주민을 위한 출산전 비용 완화 등 산모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출산을 앞둔 우리 주의 모든 산모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나 지연도 겪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법안은 뉴욕이 산모 의료의 선구자가 될 것이며 가족들에게 마땅히 누려야 하는 지원을 제공할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안 S.201/A.2656에 따라 임신부는 과징금 없이 언제나 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상업 보험사 유지 단체가 임신으로 인해 추가가입비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Cordell Cleare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법안은 임신부가 추가 비용 없이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산모 건강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가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없애고 이토록 중요한 시기에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산모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상원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고, 주지사라 이 법안에 서명한 것이 매우 기쁩니다."

**Latrice M. Walk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임신부가 추가 금액이나 지역 없이 뉴욕주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A.2656의 하원 발의자가 되어 영광입니다. 법안 제정은 여성으로서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뉴욕 주민에게 뉴욕주가 미국내 산모 사망률, 특히 아프리카계 여성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는 제 동료들 비롯해, 뉴욕주에서 산모 건강 개선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Kathy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임신은 기쁜 일입니다. 의료 문제로 불안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법안 S.1965-A/A.3865-A에 따라 뉴욕주 상업 의료보험사는 의사가 처방한 출산전 비타민 비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Joseph P. Addabbo Jr.**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출산전 비타민 비용을 민간 의료 보험으로 보장받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출산을 앞둔 산모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법안에 서명하여 뉴욕이 임신부 건강 개선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해주신 Hochul 주지사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가족의 의료 접근성과 적정가격을 보장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한 더욱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으며 주 전역에서 산모들의 복지를 지원할 것입니다.”

**Aileen M. Gunth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의 건강 개선입니다. 간호사로 직무를 시작한 첫째 날부터 제 목표였습니다. 뉴욕의 민간 보험사로 하여금 출산전 비타민 비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를 상하원 동료와 주지사가 이러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산 후 최대 9개월 동안의 기간을 가족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는 반드시 가족과 산모들이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저는 법안 통과를 지지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계속 산모 건강 개선에 관심을 가져 모든 가족들이 자녀를 출산하는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안 S.6674-A/A.7790-A에 따라 외래 환자의 기증 모유 사용에 대한 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됩니다.

**Brad Hoylman-Sigal**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롭게 부모가 된 사람들, 특히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에서는 이미 충분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모유 확보를 돕는다면 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Solages 하원의원이 기증 모유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입원 기간으로 보장 범위를 한정된 조항을 폐지한 이유입니다(S.6674A). 모유 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가 있는 한편, 제 남편인 David와 저와 같은 동성 커플은 모유 수유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에게 비용 걱정 없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신 Stewart-Cousins 여당 원내대표와 법안을 제정해주신 ‘최초의 어머니 뉴욕 주지사’인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Michaëlle Solage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 뉴욕 전역의 가족들이 기증 모유 같이 생명을 살리는 지원을 받게 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아 사망을 줄이고 산모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기증 모유 보장 범위 확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취약한 신생아 특히, 집중케어유닛에 있는 아이들은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우리는 영아 돌봄에서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모든 아이들이 가장 건강하게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도 산모 건강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뉴욕주는 [산전 관리를 위한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을 창설한 미국 최초의 주입니다](#). Hochul 주지사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또한 에센셜 플랜이라고도 불리는 퀄리파이드 헬스 플랜스에 가입한 뉴욕 주민들의 특정 임신 관련 혜택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제거하여](#) 백만 명이 넘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산전 관리를 보다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주 보건부 커미셔너인 James McDonald 박사에게 주 전역의 [출산 부모를 위해 꼭 필요한 돌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영구 명령을](#) 내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2024년 6월 10일 발령되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http://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